

귀성 열차표가 남았다…‘가고 싶어도 참는’ 추석 되나

호남선 첫날 예매율 27% 불과…코로나 이동 자제 영향
별초대행업체 문의 크게 늘고 온라인 성묘도 잇따를 듯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김민호(서울·40)씨는 올 추석에 고향인 광주를 찾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살이가 시작된 이후 명절이면 줄곧 KTX를 이용해 광주를 찾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가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김씨는 “귀성·경 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지나야 하는 부담이 큰데 부모님도 연로해 고민끝에 내리 결정”이라고 했다.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귀경행렬이 사라진, 초유의 추석 풍경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비대면 추석’을 권고한

데다, 대중교통도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등 이동 자제를 위해 좌석을 비우고 운영키로 하면서다.

◇추석 열차표·버스표가 남았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석 연휴 이동 자제’ 권고 때문인지 추석 호남선 열차표 예매가 시작된 지난 9일 예매율은 27.1%에 머물렀다. 전년도 같은 시기 예매율(51.7%)에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로, 코레일측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좌석 절반을 비우고 창가 좌석만 판매했다는 데도 표가 남아돌았다는 얘기다. 호남선 예매율이 20%대로 떨어진 적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온라인 예매가 도입된 뒤에도

몇 분 만에 피크타임 예매가 끝났다. 역 앞에 긴 줄을 서는 풍경도 사라졌다.

매년 ‘고향 앞으로’를 외치는 수도권 귀성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피크타임’인 연휴 첫날 하행선 예매율도 47.2%에 불과했다. 지난해 82.6%에 견줘 반토막이 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감안, 예년보다 예매율이 낮다”면서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 방침을 따라 시민들이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일정을 미루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만 예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 이용자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호고속측도 “예년 같으면 3주 전 20%, 2주 전 30%, 1주일 전만 되면 50~60% 예매가 이뤄지고 그것도 부족해 예비버스가 투입되

지만 올해는 예매가 아예 사라졌다”고 밝혔다.

◇별초·성묘 여행을 찾는 문의로 잇따라=코로나로 추석 연휴 때 고향을 찾는 게 어려워지면서 차례·별초를 대행업체에 맡기려는 문의로 이어지고 있다.

산림조합 광주·전남본부는 10일 광주와 전남지역 22개 시·군 조합을 통해 들어온 별초도움 요청만 52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1700건 정도의 추가 예약을 받는 게 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자제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조만간 예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대행업체들도 문의전화에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5년째 별초대행을 해오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별초 여행을 요청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난 데는 코로나

19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면서 “직접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별초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하는 하는 의뢰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의 별초대행서비스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 완도군은 지난 8일부터 별초를 하기 힘든 출향인을 대상으로 별초대행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불과 이틀만인 10일 오후 3시까지 완도·금일·노화읍 3곳에서만 103건의 남는 신청서가 접수됐다. 해남에서도 별초를 의뢰하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완도읍 관계자는 “서울, 경기도에 사는 출향인을 비롯,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출향인들에는 문의전화가 하루 평균 50여통 넘게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영광·담양일대에서 선산 별초를 대행하고 있는 한 주민은 “보통 추석을 앞두

고 100건 정도 의뢰를 받는데 올해는 110건 정도로 증가했고 문의전화도 예년에 비해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성묘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성묘시스템을 찾는 문의로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립묘지인 영락공원과 해남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추석 연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성묘를 지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하늘시스템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추모·성묘하기’ 버튼을 눌러 접속하면 고인의 사진이나 봉안함 등을 등록해 가상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헌화, 추모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지만 벌써 문의전화와 이어지고 있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차 취업사기 주범 별풍선에 수억원 가로챈 돈 대부분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기아자동차 취업사기(광주일보 8월 25·26일 6면)와 관련, 경찰에 잡힌 30대 주범이 편취한 돈을 대부분 탕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기아차 취업사기 관련 해 주범인 A씨와 광주지역 목사 B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다.

A씨는 인터넷 아이템인 별풍선 수억원 상당을 BJ에게 보내거나 도박 등에 돈을 모두 날려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확보한 피해 사례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B씨는 혐의에 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무면허 운전 상습범 항소심 감형 이유는?

다음날 기능시험 있고 가족 교통사고 소식 듣고 운전한 점 참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발각되면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다음날, 운전면허 실기시험이 예정된 점과 가족의 음주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점 등이 반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광주시 광산구 송정 5일시장 앞길에서 공항전철 역 앞 도로까지 1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한 지 6개월도 못돼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형(刑)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다음날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치를 예정이었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아 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마로해역 김 양식장 갈등에…진도-해남 어민 바다위 일촉즉발 대치



해남과 진도 해상 경계에 있는 마로해역(만호해역)에서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충돌했다. 김 양식어장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여 온 양측 어민들은 10일 오전 어선 수백척을 나눠 타고 마로해역에 집결해 어선 선수를 들이대며 대치했다. 1시간 가까이 양측 어민들의 대치로 사고 위험이 고조되자 해경 경비정이 해산 방송을 했으며, 어민들은 자진해 해산했다.

/연합뉴스

일본 전범기업 1년5개월만에 첫 변론

강제동원 손배소…스미세키홀딩스, 뒤늦게 변호인 선임 재판 참여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해당 기업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등 대응하고 나섰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0일 강제동원 피해자(1명)와 유가족 등 8명이 스미세키홀딩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4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 기업에 소송 서류가 송달됐는 지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응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최근 결석재판을 예고하자 뒤늦게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소송 서류가 해당 기업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데 따라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재하는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소송 대리인이 없더라도 원고측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불이익을 우려한 피고 기업측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측 변호인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고 원고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원고측은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과 서류 등의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과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11월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스미세키홀딩스와 함께 피소된 미쓰비시중공업도 법률대리인을 선임, 지난 7월 23일 열린 재판에 처음으로 응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